은행

Sector Issue Brief 2025. 12. 29

Check Point

- 신규 및 잔액 연체율 부담 지속
- 중소법인과 가계 신용대출 취약
- 금리인하 여력 축소로 건전성 개선 지연 '26 년 내수경기 회복강도가 관건

10월 연체율: 지연되고 있는 건전성 개선

| Analyst **전배승** | bsjun@ls-sec.co.kr

신규연체 증가와 연체채권 정리규모 감소로 높은 연체율 지속

▶ 2025년 10월 국내은행 연체율은 0.58%로 전년동월대비 10bp 상승. 연체율이 0.60%를 상회했던 지난 5월과 8월에 비해서는 하락했으나, 여전히 코로나 국면 이후로는 가장 높은 구간에 머물러 있음

▶ 10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이 2.9조원으로 1~9월 평균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고, 신규연체율이 0.12%로 전월대비 2bp 상승하는 등 신규연체 개선속도가 더디게 나타남

▶ 10월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연체율은 각각 0.69%, 0.42%로 전년동월대비 13bp, 4bp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기업대출 중에서는 중소기업대출, 특히 중소법인의 연체율이 0.93%에 달하며 24년 10월 대비 19bp나 상승. 가계대출의 경우 주담대를 제외한 일반대출(신용대출 등) 연체율이 0.85%로 전년동월대비 10bp 높은 수준을 보임

▶ 대기업대출을 제외하면 전 부문의 연체율이 전년동월대비 높게 유지되는 가운데,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만 격차가 축소. 나머지 부문은 일괄적으로 연체율 하락이 지연되면서 최근 3~4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구간에서 유지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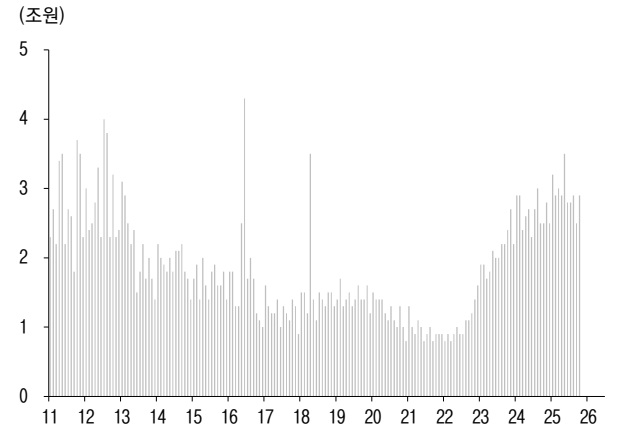
▶ 한편 10월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1.3조원으로 25년 중 분기말(3,6,9월)을 제외한 달의 평균 1.6조원에 비해 적었고, 24년 10월의 1.7조원에 비해서도 감소하면서 표면 연체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측면도 있어 보임

더디게 진행중인 연체율 하락. 26년 내수경기 회복강도가 건전성 개선속도 결정변수

▶ 24년 연말부터 25년 상반기에 걸쳐 100bp의 금리인하와 함께 대출금리 하락이 병행되었으나 기업과 가계부문 모두 신규부실 규모가 높게 유지되고 있음. 이는 여전히 과거대비 절대금리 수준이 높은데다 최근의 시장금리 반등,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따른 가산금리 상승 등으로 대출금리의 하락속도가 빠르지 못하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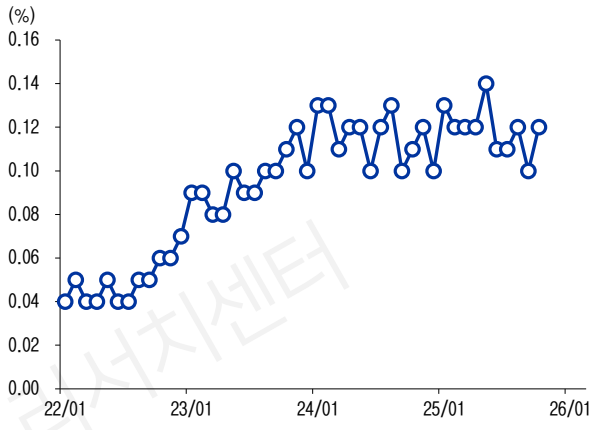
▶ 26년 추가적인 금리인하 여력이 축소된 가운데, 중소법인과 가계 신용대출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문의 연체율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 내수경기의 회복강도가 건전성 지표 개선속도의 결정변수가 될 것. 26년 경기개선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은행권 대손부담이 경감될 것이나 속도는 기대만큼 빠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

그림1 은행권 신규연체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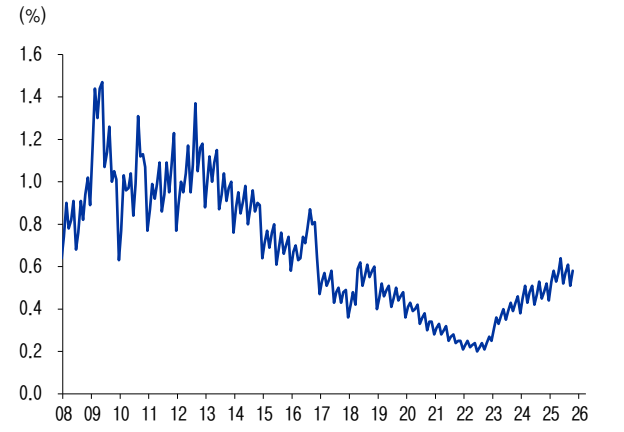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은행권 신규 연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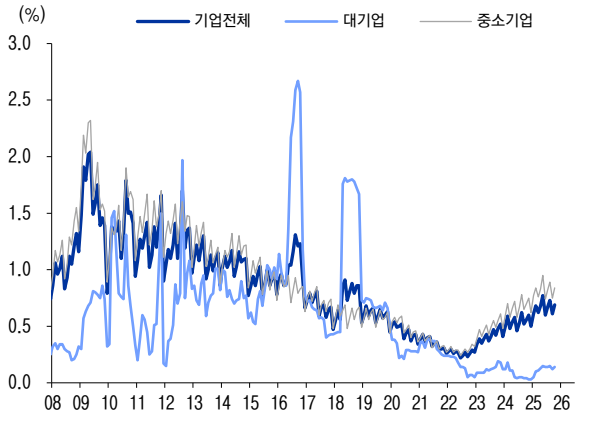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은행권 총대출 잔액 연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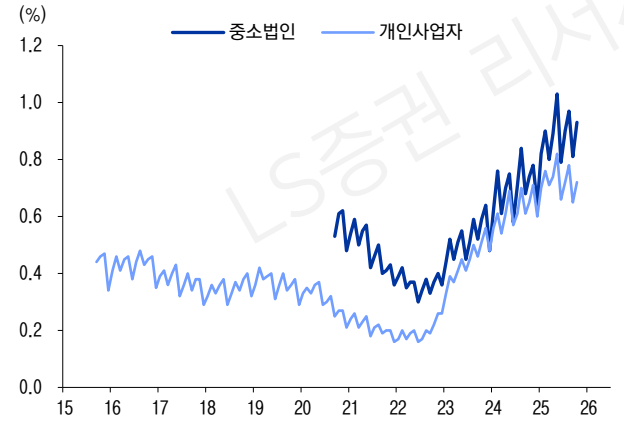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은행권 기업대출 부문별 연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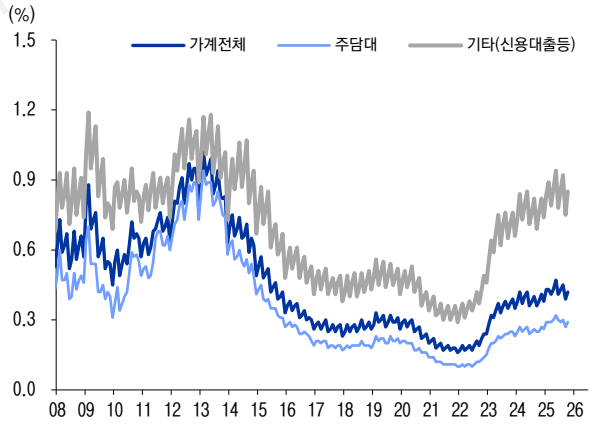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은행권 중소기업대출 세부 연체율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은행권 가계대출 부문별 연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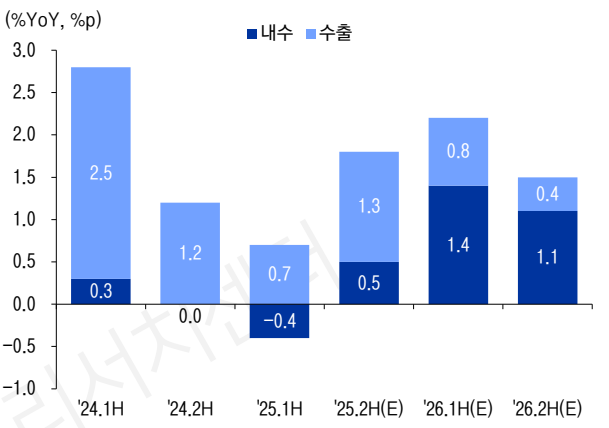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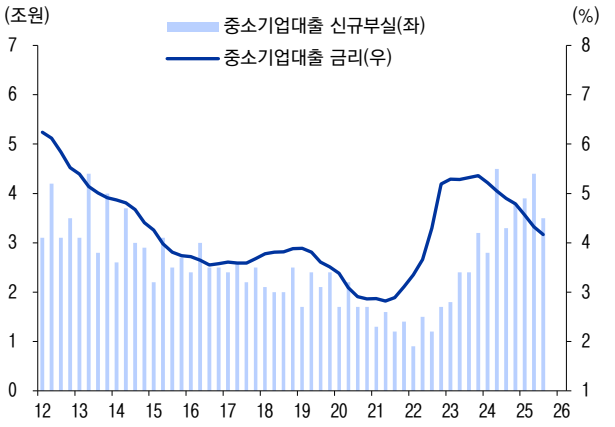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국내경기 부문별 성장기여도 추이 및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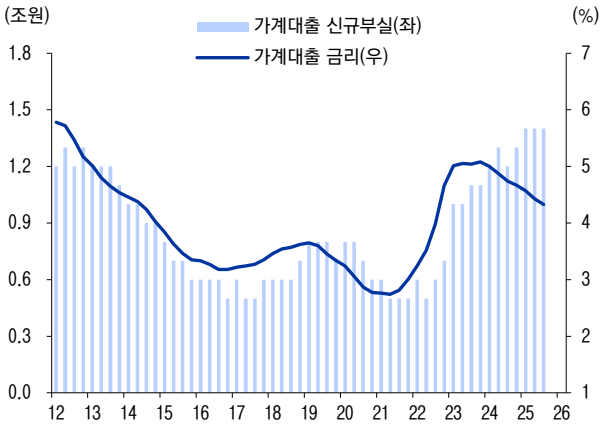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은행권 중소기업대출 신규부실과 대출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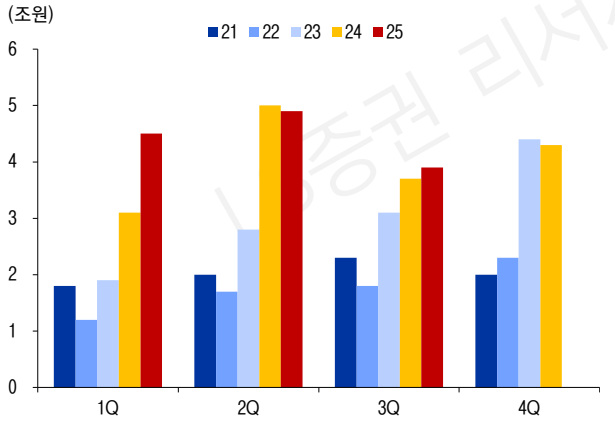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은행권 가계대출 신규부실과 대출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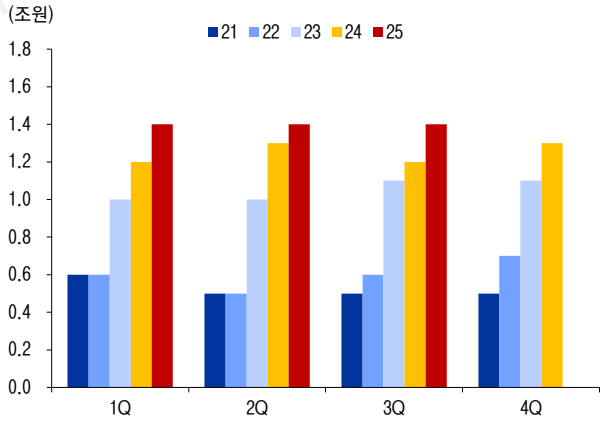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은행권 기업여신 분기별 신규부실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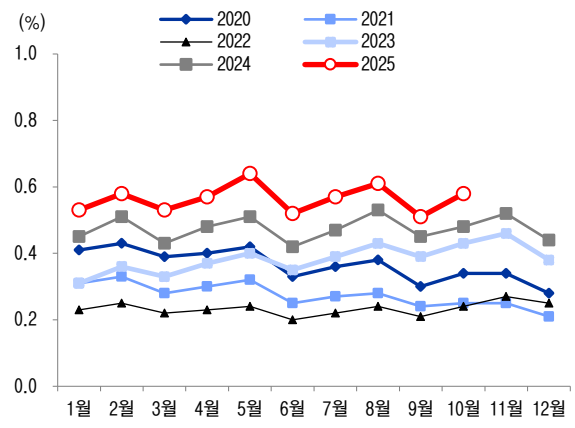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2 은행권 가계여신 분기별 신규부실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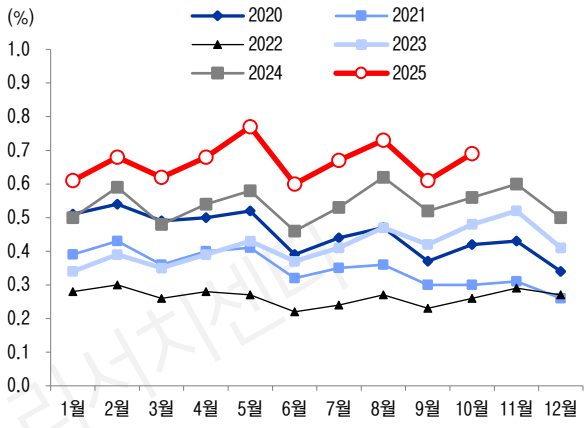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3 은행권 총대출 월별 연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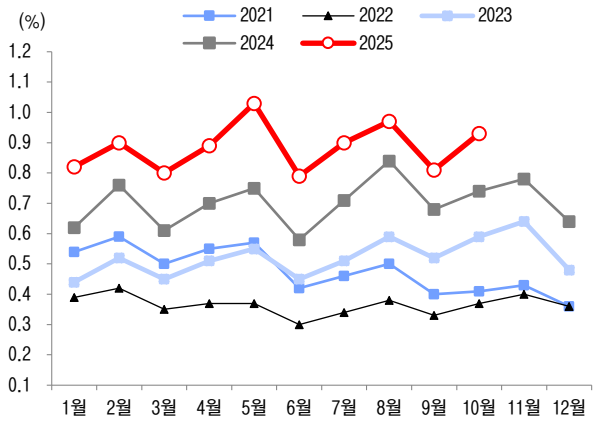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4 은행권 기업대출 월별 연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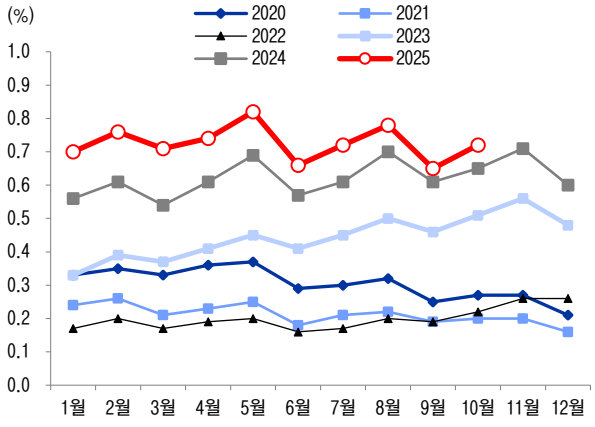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5 은행권 중소법인 월별 연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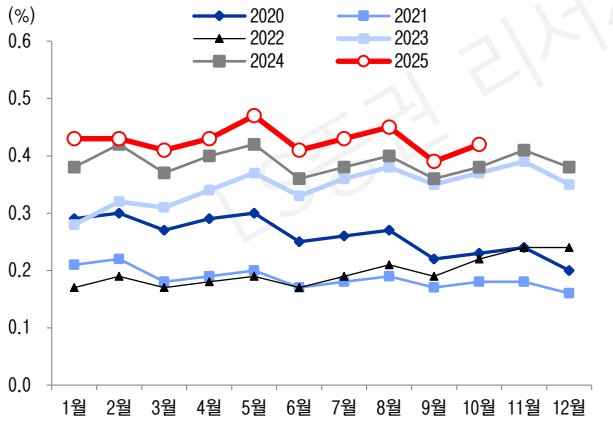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6 은행권 개인사업자 월별 연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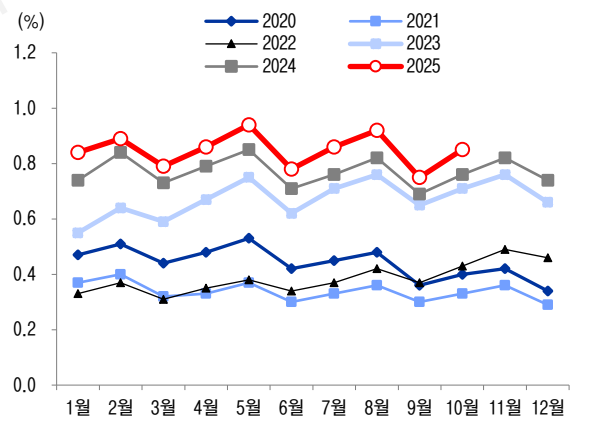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7 은행권 가계대출 월별 연체율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8 은행권 가계 신용대출 등 월별 연체율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LS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전배승).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 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 개월)	투자의견 비율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Buy (매수) Hold (보유) Sell (매도)	+15% 이상 기대 -15% ~ +15% -15% 이하 기대	89.4% 10.6%	2018 년 10 월 25 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존 ±15%로 변경
		합계		**100.0%**	투자의견 비율은 2024. 09. 01 ~ 2025. 09. 30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최근 1 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